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아카이브 서울 vol.1



청도에서 건네는 기억의 바통
주는 사람의 말, 받는 사람의 말
#기록 #일상 #오늘하루

서울 사람 아카이브, 휴먼스오브서울
'위안부' 기록물: 자료와 조사과정 및 길어 올리기
남겨진 기록, 미지의 가치를 전달하는 즐거움

'타인의 삶'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토록 작고 소중한 아카이브
누군가는 모아서 미래로 보내야 한다면

기억의 바통터치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

서울의 기록과 시민의 기억이 만나는 서울기록원

서울기록원은 서울기록(시정기록과 시민기록)을 수집하고 그 안에 담긴 노력과 경험을 기록유산으로 관리하여, 시민과 함께 기록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건립된 서울의 기록관리 전문기관입니다. 서울기록원은 서울의 기록과 시민의 기억이 만나는 세계적인 수준의 아카이브를 지향하며, 기록의 이관·수집, 기록물 보존·복원, 기록관리 교육, 전시 및 강연,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eoul Metropolitan Archives (SMA): Home to the history of Seoul and its citizens

SMA preserves historical records and information abou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s well as personal history of its citizens. Our mission is to foster civic life by preserving and providing public access to the historical records of the city and its citizens. We strive to ensure that the records are properly maintained following professional archival and record management practices.
We provide home to a wide range of documents about Seoul and its citizens. We work to transfer and collect records, preserve and restore archives, provide education regarding archival management and research, arrange and host a range of events such as exhibitions, lectures, seminars, and workshops, among others.

4	Item	청도에서 건네는 기억의 바통
10	Item	주는 사람의 말, 받는 사람의 말
12	Tag	#기록 #일상 #오늘하루
14	Interview	서울 사람 아카이브, 휴먼스오브서울
18	Research	‘위안부’ 기록물: 자료와 조사과정 및 길어 올리기
22	Series	남겨진 기록, 미지의 가치를 전달하는 즐거움
24	Essay	‘타인의 삶’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26	File	이토록 작고 소중한 아카이브
28	Comments	누군가는 모아서 미래로 보내야 한다면
30	Outro	숨겨진 것들을 남기다

〈아카이브 서울〉은 서울시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서울기록원’에서 발행하는 간행물로, 담아두기보다는 스치는 일이 더 많은 우리의 일상과 사회에서 기억, 그리고 기록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콘텐츠입니다.

청도에서 건네는 기억의 바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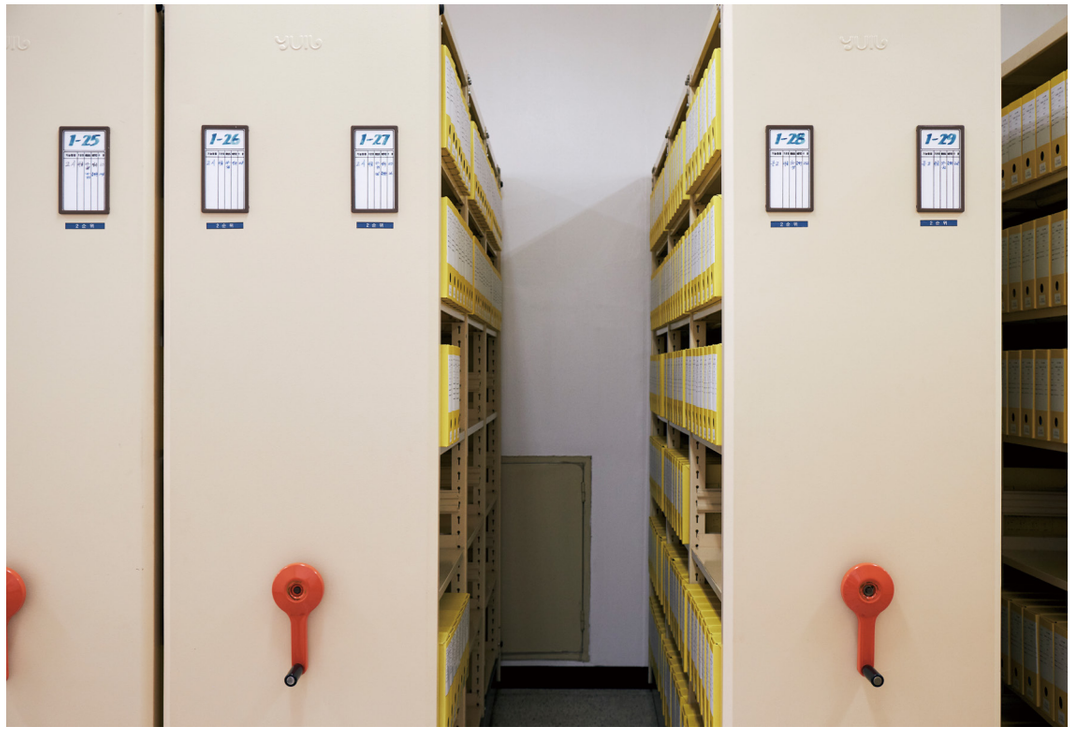
5호선 광화문역은 분명 누군가가 설계했을 것이다. 그 설계도면은 어디에 있을까. 80년대에 강동구에 있던 할머니 댁의 지적 정보, 즉 토지의 위치와 형질, 소유 관계, 경계, 넓이를 알고 싶다면 어디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이들이 보관된 곳은 서울 어딘가가 아닌,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62-6. 서울특별시 문서보존소'다. 보통 줄여서 '청도문서고'라고도 부른다.

서울도, 수도권도 아닌 경상도. 김신조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1968년 1·21 사건을 계기로 태어난 청도문서고는 서울의 중요한 기록을 안전하게 분산한다는 방침 아래 1971년, 이곳 경상북도 청도에 설립되었다. 그 말은, 공덕1동의 1970년 도시계획도나 1990년도에 서울에서 취득한 미용사 자격증 원본, 서울에 살았던 어느 조상의 땅문서를 보고 싶다면 차로 4시간을 달려가야만 한다는 뜻이다.

다행히 머지않아 이런 수고를 덜 수 있게 되었다. 영원히 보관되어야 할 서울의 시정기록을 책임지고 관할하는 곳이 서울 안에 생기기 때문이다. 수도 아카이브인 서울기록원(Seoul Metropolitan Archives)이 2019년 5월에 개관함에 따라, 가장 먼저 가져오는 기록이 바로 이 청도문서고의 기록물이다. 기억이 기록으로 남은 곳. 이제 청도문서고는 잘 붙잡고 있던 이 기억의 임무를, 그 바통을 서울로 건넨다. 50년간 서울의 기억을 잘 붙잡아 준 청도문서고에 인사하며, 이곳에 작은 기록을 남긴다.

지하 3층~지상 1층(전체 면적 2천여㎡) 규모로 이루어진 경상북도 청도의 서울시 문서보존소 건물. 세상을 활짝 마주하는 것도 같고, 담을 두른 것도 같고, 또 언뜻 봐서는 요새(fortress) 같기도 하다. 2019년에 이곳에는 커다란 트럭이 종종 드나들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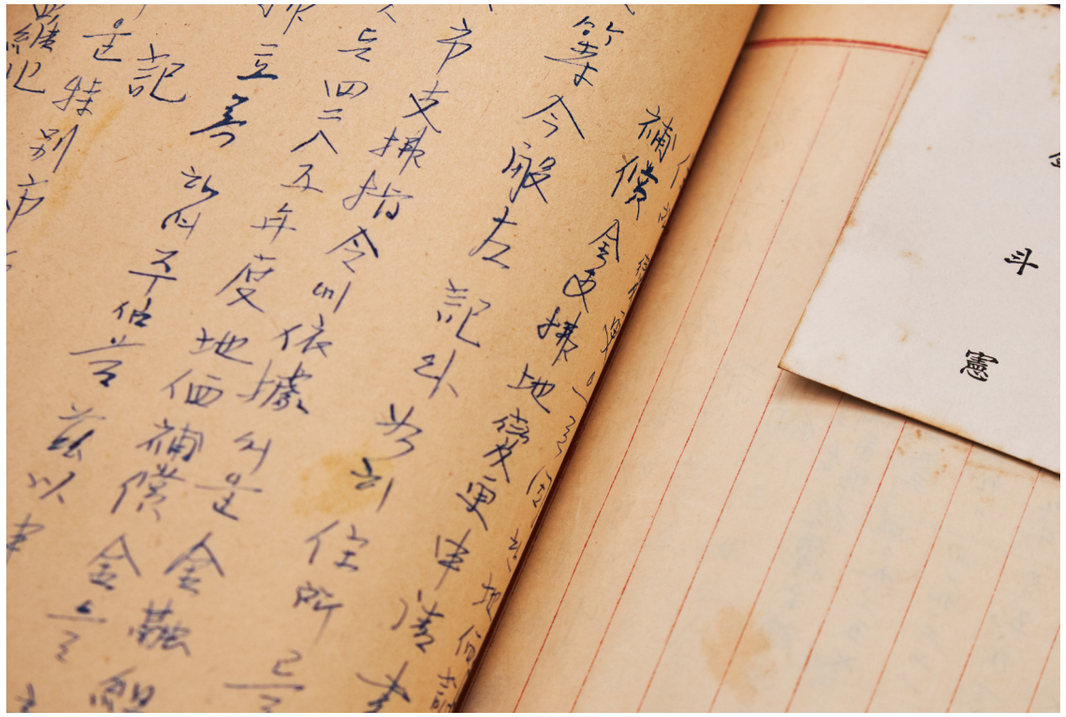






서울시의 준영구, 영구보존 기록물이 건물의 지하 1층, 2층, 3층에 걸쳐 소장되어 있다. 기록물은 재산, 관인대장, 공무원 인사, 각종 사업허가, 토지매매계약, 조례·훈령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일반문서 101,439권, 마이크로필름 8,003롤, 시청각기록물 449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의 청도문서고 방문조사 결과보고(2018. 6. 25.) 자료에 따르면, 일반서고는 온도 18~22℃, 습도 40~55%, 마이크로필름 보관실은 온도 13~17℃, 습도 35~45%(변화율 10% 이내)를 유지한다.

언제부터 누렇게 바랬는지 알 수 없는, 수십 년 전에 수기 작성된 기록물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조심스럽다. 청도문서고에는 일제강점기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기록물이 보관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30년 이상 된 기록물이다. 각 보관실은 문서나 필름 등을 최적의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 부유균이나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상시소독 시스템이 가동되는데, 서고나 마이크로필름실에 가면 쾌적한 공기와 의외의 시트러스 향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화면 위 어렴풋한 글자에 염창동의 관할구가 영등포구에서 강서구로 변경된 흔적이 보인다. 그동안 누군가가 토지대장을 열람하고자 청도문서고를 방문하면, 담당 직원이 마이크로필름을 찾아 화면으로 스캔한 후 프린트하여 사본을 발급해 주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서울기록원은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웹에서 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여기 〈지하철 5호선 충정로 정거장 건축실시설계〉라는 기록물이 있다. 기록물의 구성은 사진과 같다. 설계도면의 색인 목록과 세부 설계도면, 이들을 담고 정보를 기재한 기록물철 그리고 까만 플라스틱 통 안에 담긴 마이크로필름. 기록의 원본 훼손을 방지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기록은 디지털화 또는 마이크로필름화되어 있다.



상시 지켜야 하는 문서고의 특성상 청도문서고 직원들은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거의 없다. 2018년 11월 15일에 근무한 세 사람이 앉아 있다. 그 뒤로 청도문서고에서 가장 큰, 이제는 사용되지 않는 도면 촬영기가 보인다. 왼쪽부터 서울시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기록관리팀 이태호 주무관, 김병희 주무관, 진종권 주무관.

주는 사람의 말, 받는 사람의 말

수십 수백 톤의 기억을 주고받는 현장에는 누가 있을까.
그동안 서울시의 문서를 하나씩 만지고, 분류하고, 정리했던
앞으로 이 문서들을 하나씩 만지고, 분류하고, 정리할 사람들의 이야기.

이관 移管

[이관] 명사 1. 관할을 옮김. 또는 옮기어 관할함.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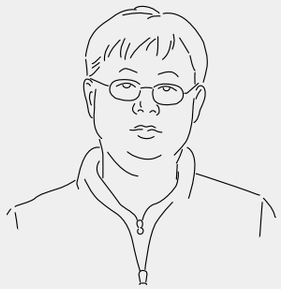
청도에서 온 메시지

안녕하세요. 청도문서고 김병희 주무관입니다. 저는 청도문서고에서 지난 15년 간 서울시의 각종 문서와 도면 등 기록물을 이관받고 정리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서울시 기록과의 여러 일이 떠오릅니다.

그간 우리의 손을 거친 모든 문서가 중요했지만, 삼풍사고 관련 문서가 왔을 때는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한 사건인 만큼 이 문서들을 잘 보관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격증 관련 문서는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많은 자료 속에서 어렵게 찾아 민원인에게 사본 발급을 할 때는 기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간혹 서울의 지적문서를 찾는 민원인들이 구청, 국가기록원을 방문하고도 구하지 못해 경북 청도까지 오시는 것을 보면 좀 측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여러 일을 뒤로 하고 청도문서고가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 한편이 허전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이 열람이나 문서 사본이 필요할 때 서울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 잘된 일이기도 합니다. 서울기록원으로 이사하는 이 기록들이 더 톡톡히 제 역할을 할 날이 기다려집니다.

청도문서고 김병희 주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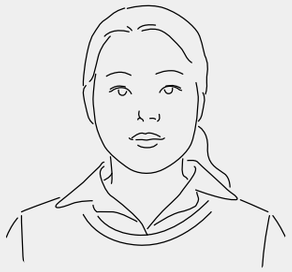


청도로 보내는 메시지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서울기록원에서 기록물 이관을 담당하고 있는 김은아입니다. 얼마 전 기록물의 보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청도문서고를 방문하였을 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서울의 중요한 기록물이 서울에서 4시간이나 떨어진 곳에서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을까? 어서 서울로 가져와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서고별로 깔끔하게 기록이 정리된 것을 보며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주무관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실 때는 청도문서고가 문을 닫는 것에 대한 주무관님의 허전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무관님! 청도문서고에서 서울기록원으로 이관되어 오는 기록은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기록에 담긴 다양한 사연과 정보들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의 중요한 기록을 소중하게 보살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기록원 김은아 주무관



#기록 #일상 #오늘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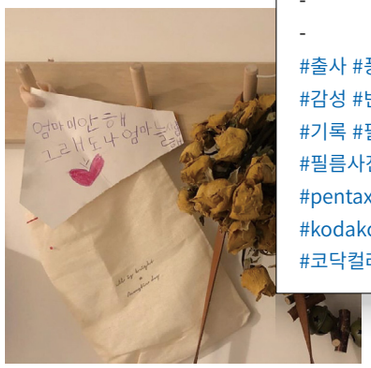
무심코 생각과 이미지를 흘려보내는 SNS도,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면 다채롭게 반짝이는
찰나의 모자이크가 된다. 때로는 소중히, 때로는 가볍게 #기록 으로 남겨둔 사람들의 흔적을 모아 미래에 펼쳐본다면
과연 그 모습은 어떨까? 2018년 12월 어느 날 #기록 으로 포착된, 특별한 혹은 평범한 일상의 순간.



좋아요 16개
apralaon /
어느덧 12월 첫 주가 지나갔고, 나는 늘 정신이 없다.
일을 안 하는 듯 늘 뭔가 하고 있고 요즘은 사람으로 복작거리는 일상이 잦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것들만 마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일 사이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올해도 값진 1년이다.
근데, 세상 쓸모없는 걸 뭘 사야 하나 #고민 #사월일기 #사월기록 #글 #일기 #생각 #감정 #사진 #일상 #daily #record #소통 #기록 #일기장 #사진일기 #연말



좋아요 41개
white_night_film 모퉁이.
-
-
-
#출사 #풍경 #지하철 #어딘가 #감성 #빈티지 #사진 #일상 #스냅 #기록 #필름카메라 #filmcamera #필름사진 #펜탁스미슈퍼 #pentaxmesuper #filmphotography #kodakcolorplus200 #코닥컬러플러스200



좋아요 395개
kkominyoung 실수한건 나였는데 먼저 사과 한 건 아이. '그래도' 와 '늘' 이라는 표현을 썼다! #다섯살아인 #기록 #소통 #일상 #인스타데일리 #아이있는집 #집스타그램 #육아기록 #엄마일기 #맘스타그램 #주말일상 #주말스타그램 #육아소통 #5살 #딸스타그램 #5살_아인



좋아요 99개
gimjane1 #호주로드트립 #3일차
드디어 앨리스 스프링스를 지나 킹스캐년이 있는 피터만에 도착했다. 피터만은 사랑이야!
1. 출발지 : 테이블랜드 (Tablelands)
2. 도착지 : 피터만 (Petermann)
3. 달린 거리 : 총 1,196km / 누적 2,896km
#제인1여행기 #여행 #여행스타그램 #호주 #호주여행 #여행에미치다 #팔로우미스카이스캐너#travelholic #여행기록 #기록 #감성 #소통 #여행일기 #일기 #에세이 #일상 #일상스타그램#세계여행 #배낭여행 #여행객 #여행기 #추억#로드트립 #그림일기 #petermann#roadtrip #🚌 #AU



좋아요 23개
thanks_yh
1년간 쭈니와의 시간을 담은 2019년 달력. 쭈니를 갖고 계획했던 매년 달력 만들기를 드디어 시작 할 수 있게 되었다. 올 해는 시작 첫 해라 양가 한 부씩 총 세부를 찍었다. 한 달 한 달 쭈니 모습을 담은 달력을 보고 있자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더 소중하게 느껴질지..
아침 먹는 쭈니 옆 식탁에 앉아 태어난지 열흘도 안된 아기 쭈니 사진을 보고 있으니 혼자 뭉클뭉클한 아침이다.
#쭈니일상 #성장 #기록 #11개월아기 #2019년달력



좋아요 19개
i_love_dooly .
.
.
.
.
#플로리다 #마이애미 #미국생활 #일상 #미국#추억 #순간 #기록 #사진 #겨울 #낚시 #밤바다 #캠핑 #2018 #florida #miami #miamilife #miamivibes #camping #fishing #fish #daily #nature #photo #photography #photoshoot #photooftheday #moment #photomemories #holiday

서울 사람 아카이브, 휴먼스오브서울

"이야기는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근간이다. 사람들 속에 그 빛나는 이야기가 있다."

한 도시에 영혼이 있다면 그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숨결과 이야기, 정서의 집합체가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서울이라는 도시의 영혼을 가장 꾸준히, 가장 집약된 형태로 아카이빙한 사람들이 있다. 2013년부터 서울 사람, 아니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습을 담은 사람들이다. 2018년 말까지 이들이 만든 서울 사람 콘텐츠는 1천5백여 건이고, 사진 속에 담긴 인물을 추산하자면 2천여 명은 된다. 이 작업을 12만여 명 이상이 구독하는 페이스북에 꾸준히 연재하고 있다. 서울 사람을 기록하는 사람들, 휴먼스오브서울(Humans of Seoul) 이야기다.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휴먼스오브서울의 운영자이자 포토그래퍼인 박기훈 디렉터를 만나 이 특별한 인물 아카이브에 대해 들었다.



휴먼스오브서울,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

함께 시작한 정성균 편집장은 나와 2002년부터 함께 사진도 찍고 여행도 다니던 가까운 친구다. 영어권에 관심이 많았던 그가 휴먼스오브뉴욕(Humans of New York)을 보라고 하더라. 뉴욕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페이스북 페이지였는데 사진술, 스토리텔링 모두 너무 좋았다. 2013년 여름, 가을 즈음이었다. 둘이서 이걸 한국에서 해보자고 했다. 곧바로 수많은 회의를 거쳐 2013년 10월부터 지인 데리고 샘플 콘텐츠를 만들며 시작했다.

거의 매일 올라오는 걸 보면 두 명이 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

두 명이서 시작했는데 말도 못했다. 거리 인터뷰, 사진, 스토리 구성, 번역까지. 제일 힘든 게 번역이었는데 그걸 처음엔 정 편집장 혼자 했다.

여태까지 이어져온 것이 대단하다. 지금도 둘이 운영하나.

지금 정 편집장은 유학 중이다. 거기서도 편집장, 번역, 운영 업무를 함께하고 있다. 둘을 포함해서 23명의 크루가 있다. 오늘 인터뷰도 크루와 함께 참여하고 싶었는데 평일 오후라 다들 시간이 안 되어서 나 혼자 나왔다.

크루와는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함께하고 있나.

초반에는 주변 지인과 함께 했다가 다양한 멤버들과 함께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공개 모집을 하고 있다. 다들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다. 해외 멤버들도 다수 있기 때문에 메신저 화상회의 등 온라인 미팅도 하고 국내 거주 멤버들은 주기적으로 오프라인에 모여 회의도 하고 친목도 다진다.

콘텐츠를 보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끌어냈나 싶다. 누구를 인터뷰 해야겠다는 기준이 있나.

우리 주변에 사는 누구나가 다 주인공이다. 딱히 기준은 없다. 모두들 자신들만의 이야기가 있다. 일상이고 자기 이야기라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는 것 뿐이다. 이야기를 하다보면 무언가가 나온다. 꼭. 하지만 특별함만을 원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그저 현재를 살아가는 평범한 누구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좋다.

인터뷰하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들이 많을 것 같다. 몇 개만 소개하자면?

한번은 정 편집장이 인터뷰를 잘 마치고 사진 촬영을 하려는데 인터뷰이가 '약속 시간이 다 됐다'며 갑자기 택시를 타고 가버리신 일이 있었다. 결국 사진이 없어서 그 인터뷰는 사용할 수 없었다. 멤버 중 한 명은 지하철에서 너무 독특한 분을 마주친 적이 있었다. 바로 인터뷰를 청할 용기가 안 나 몇 정거장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분이 내리셨다고 한다. 가던 길이 있었지만 놓치기 싫어 따라 내려서 한참을 걷다 용기 내 인터뷰를 청했고, 인터뷰와 사진 촬영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많다. 기본적으로 거리 인터뷰에서 거절은 수도 없이 당한다. 길을 걷다 갑자기 섭외하는 것이라 여러 면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일 테니.

수록하지 못한 이야기가 많을텐데, 무엇을 담고 무엇을 버릴지 어떻게 선택하나?

기쁘든 슬프든 스토리로서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한다. 마음이 좀 더 드러나거나, 사람들에게 시사점이 있거나,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많이 선별하는 편이다. 개인정보는 오히려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름이나 나이도 넣지 않는다.

실리고 나서의 반응이 궁금하다. 수정 요청이 오면 어떡하나.

댓글로도 그렇고 주로 예쁘게 찍어주셔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DSLR로 그렇게 찍히는 경우가 흔치 않으니까. 본인이 말한 내용이어도 인터뷰가 의도와 다르게 나갔다고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수정은 어렵고 게시물을 내린다. 수정은 이미 콘텐츠를 본 사람들에 대한 기만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

2014년의 한 인터뷰에서는 거리의 사람들이 '닫혀 있다'고 했다. 지금은 어떤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더 닫힌 것 같다. 대부분의 시간을 핸드폰만 보고 소통하니까. 모순적이지만 그래서 더 벽만 허물면 얘기를 잘 들려주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 환경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외롭고 지친 일상에서 소통할 곳, 위로받을 곳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페이지를 보는 것 아닐까. 요즘 미디어는 양적으로는 많이 팽창했는데 당장의 반응, 도달률 같은 것만 따진다. 물론 흥행도 필요하지만 왜 봐야 하는지의 접근부터 필요하지 않을까. 가치 있는 게 세상에 하나라도 더 존재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휴먼스오브서울을 유지하고 있다.

함께하는 크루들에게도 그런 뜻에 동의하는가? 휴먼스오브서울 활동이 그들에게 특별한 경험일 것 같다.

사진 찍히고 인터뷰한 사람들은 한 번의 특별한 이벤트를 경험한 셈이 될 거다. 하지만 이 일을 함께하는 크루들은 삶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멤버 중에 말을 조금 더듬는 친구도 있었는데,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달라졌다. 지금은 거의 베스트 멤버 중 하나다. 원래 하던 일은 그쪽이 아니었는데, 글 쓰고 콘텐츠 만드는 일로 하는 일도 바뀌었다. 휴먼스오브서울에 강연 요청이 들어와도 가능하면 멤버들과 함께 나간다. 경험하면서 크루들도 느끼는 바가 생기고 성장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에 대한 또 다른 당위성을 주는 것 같다.

휴먼스오브서울 콘텐츠를 원하는 사람이나 기관도 많을 것 같다.

많다. 서울시청 1층에서 전시한 적도 있다. 사실 이목을 끄는 만큼 이상한 요청이 정말 많다. 클라이언트 미팅을 했는데 이야기만 가져가기도 한다. 수고롭게 만든 가치 있는 콘텐츠에 관한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것 같아 화가 날 때도 있다.



www.facebook.com/seoulhumans

개인적으로든 직업적으로든 아카이빙을 하는 다른 것도 있는가.

수집벽이 좀 있다. 컴퓨터에서 보고 듣는 것은 정리는 안 해도 모아둔다. 사진도 찍는다. 물건을 사도, 밥 먹을 때도. 끼니때마다 찍는다. 일기 같다. 내가 뭐 먹었는지 보면 누구를 만나 뭘 했는지 떠오른다. 공항가는 길이면 화살표, 티켓 다 찍고. 한 달에 2천 장 넘게 찍는 것 같다. 북스캐너도 샀다. 명절 같은 때에 혼자 사무실 창고에 남아서 책을 어느 정도 보고나서 다 잘라서 스캔하거나 버린다. 지로 용지도 스캔해야 버리고 그전에는 버리지 않는다.

그 정도면 병 아닌가. 보관은 어떻게 하는가.

하드디스크가 있고 서버 운영도 한다. 용량이 90TB 정도 된다.

그런 면에서 박기훈이 생각하는 '기록'은.

왜 남길까. 집착? 또는 애착인 것 같다. 내가 생활했던 것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애착.

휴먼스오브서울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면 좋을까.

'아, 이렇게 다양한, 인간적인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걸 느끼면 되는 것 같다. 이 각박한 세상에. 개개인의 이야기가 많이 공유되고 공감되면 좋겠다. 별거 있겠나. 이런 사람들이 각자 스토리를 안고 사는구나, 그 이야기가 나랑 맞닿는 부분도 있구나, 이런 측면이나 관점도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으면 충분한 것 같다. 사람들에게 은은하게 향기처럼 남아줬으면 싶다.

오래 지속되길 바란다.

이야기는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근간이다. 사람들 속에 그 빛나는 이야기가 있다. 그걸 방치하고 버리는 건 아닌 것 같다. 그 가치를 더 발전시키고 보존하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지금도 할만큼 했지만 아직도 하고 있는 이유다.

휴먼스오브서울이 발견한 서울 사람의 '틈'

2013년 11월부터 꾸준히 연재 중인 휴먼스오브서울의 콘텐츠. 그들이 찾아낸 보석 같은 이야기를 허락 하에 옮겼다.
휴먼스오브서울은 매체에 국한되지 않고 가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책을 발간할 준비도 하고 있다.

2018. 3. 14. Humans of Seoul



"원래 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했어요. 그만두고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특히 반대하셨어요. 여자가 소방관이 되기에는 뽑는 수도 적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거라는 말이었죠."
"실제로 소방관이 되니 어때요?"
"3교대로 근무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잘 하고 있어요. 근무에서 특별대우를 받은 적도 없어요. 얼마 전에는 서울시 소방서 대상으로 배드민턴 대회가 열렸는데 참가하려는 여자 대원이 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자 취급 해달라고 하고 나갔죠. 4강까지 올라갔어요."
"대단하네요."
"더 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 남자 파트너가 좀 부실해서…"
HOS Stories: 불과 싸우는 사람들
(Firefighters of Seoul)

2018. 10. 27. Humans of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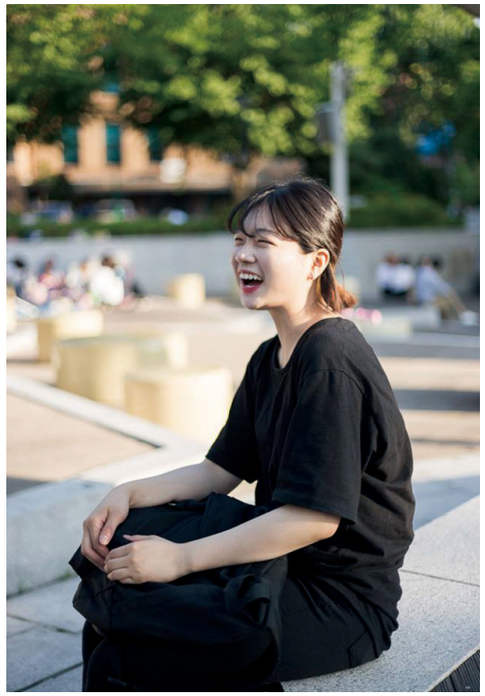
"서울은 1, 2초가 있는 곳이어야 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뒷사람이 편히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잡아주는 1, 2초가 있는 곳"

2017. 12. 14. Humans of Seoul



"아이가 언제 가장 예뻐 보이세요?"
"(아빠) 한번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죠"
"아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빠) 없으면 편하죠."
"네?"
"(아빠) 없으면 편하죠. 있으면 행복하고."

2018. 8. 8. Humans of Seoul



"저희 아빠가 완전 딸 바보였어요. 항상 저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빠가 안 보이시더니 어른들이 저보고 열 밤 자고 나면 아빠가 돌아오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믿고 기다렸죠. 그러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서야 어렴풋이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주변에서 '네가 엄마한테 잘 해야 한다.'같은 말을 하니까 조금씩 눈치를 챘거든요. 집안 어르신들 말로는 아빠가 엄청 끼가 많으셨대요. 무반주로 춤을 추실 정도로… 근데 제가 그걸 좀 닮았나봐요. 최근에 연기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사실 워낙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이제 20년이 흘러서 아빠가 잘 기억이 안나지만 요즘 연기 연습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아빠 딸이구나. 아빠 딸 맞구나.' 하는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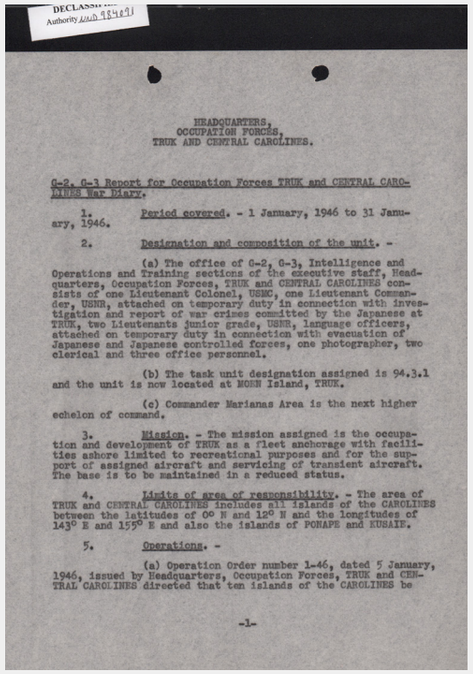
‘위안부’ 기록물: 자료와 조사과정 및 길어 올리기

전갑생 |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연구자는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사전 준비부터 목록 정리, 그 가치를 드러내는 일까지 과정 하나하나에 쉼 없이 매진한다. 그렇게 발굴되는 자료는 연구자들이 어떤 주제와 내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얼마만큼 고생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전체 분량이나 건수, 연구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문서 한 장, 사진 한 장, 영상 몇 초에서 풀리지 않던 의문과 사건들이 해결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 그 자료는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된다. 필자는 지난 몇 년간 서울대 정진성연구팀과 함께 연구에 참여하며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RA II)에서 일본군 조선인 ‘위안부’ 관계 자료를 발굴해왔다. 자료 발굴부터 가려진 가치와 의미를 드러내기까지의 과정을, 3건의 실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해 본다.

조사: 끊임없는 2차 조사와 문서 구조 이해하기

1946년 2월 5일 태평양 서쪽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트럭제도 더불론 섬에서 조선으로 떠나기 위해 짐을 꾸리는 여성들의 사진이 2017년에 공개되었다. 일본군‘위안부’로 추정되는 26명의 조선인 여성과 아이 1명이 탑승했던 이키노(IKINO)호가 1946년 1월 17일 368명의 승객을 태우고 트럭 및 더블론을 출발했음을 보여주는 문서와 사진이 발굴된 것이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인 이복순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큰 관심을 끌었다(RG 127, Entry A1 46B, Box 95).



DECLASSIFIED
Authority NND 984091

HEADQUARTERS,
OCCUPATION FORCES,
TRUK AND CENTRAL CAROLINES.

G-2, G-3 Report for Occupation Forces TRUK and CENTRAL CAROLINES War Diary.

1. Period covered. - 1 January, 1946 to 31 January, 1946.

2. Designation and composition of the unit. -

(a) The office of G-2, G-3, Intelligence and Operations and Training sections of the executive staff, Headquarters, Occupation Forces, TRUK and CENTRAL CAROLINES consists of one Lieutenant Colonel, USMC, one Lieutenant Commander, USNR, attached on temporary duty in connection with investigation and report of war crimes committed by the Japanese at TRUK, two Lieutenants junior grade, USNR, language officers, attached on temporary duty in connection with evacuation of Japanese and Japanese controlled forces, one photographer, two clerical and three office personnel.

(b) The task unit designation assigned is 94.3.1 and the unit is now located at MOEN Island, TRUK.

(c) Commander Marianas Area is the next higher echelon of command.

3. Mission. - The mission assigned is the occupation and development of TRUK as a fleet anchorage with facilities ashore limited to recreational purposes and for the support of assigned aircraft and servicing of transient aircraft. The base is to be maintained in a reduced status.

4. Limits of area of responsibility. - The area of TRUK and CENTRAL CAROLINES includes all islands of the CAROLINES between the latitudes of 0° N and 12° N and the longitudes of 143° E and 155° E and also the islands of PONAPE and KUSAIE.

5. Operations. -

(a) Operation Order number 1-46, dated 5 January, 1946, issued by Headquarters, Occupation Forces, TRUK and CENTRAL CAROLINES directed that ten islands of the CAROLINES be

-1-

G-2, G-3 Report for Occupation Forces Truk and Central Caroline War Diary, 1 January, 1946 to 31 January, 1946. RG 127, Entry A1 46B, Box 95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트럭 섬의 ‘위안부’ 자료를 어떻게 찾을 수 있었을까. NARA II 의 기록물은 거미줄처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촘촘히 연결된 문서의 계열과 다양한 검색 도구를 이용해 자료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곳이다. 연구팀은 본격적으로 자료를 조사하기 전, 트럭 섬의 ‘위안부’와 관련된 국내외 논문, 수기 및 전쟁사, 언론 보도, 피해자 증언 등을 꼼꼼하게 정리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1945~6년 트럭 섬에 주둔한 미군과 일본군의 부대 역사를 정리한 뒤, 귀환하는 조선인이 있는지 추가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1945년 4월 이후 미 해병대와 해군 연합군은 ‘트럭 섬 점령군(Truk Occupation Force)’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어 NARA II 의 온라인 카탈로그의 ‘미 해병대 사료군(RG127)’ 중 1945~6년 사이 생산된 기록 시리즈 안에 ‘트럭 섬 점령군’이 생산한 전쟁 일지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트럭 섬 점령군'의 전쟁 일지는 이 시리즈에 속한 전체 100개 박스 중 95, 96번 두 개의 박스 안에 들어있었다. 지금은 NARA 온라인 카탈로그*에서 ‘Truk Occupation Force’를 검색하면 해병대와 관련된 시리즈는 단 하나가 뜬다. NARA II 열람실에서 박스를 받아보니 수천 장의 문서들이 빽빽하게 가득 차 있었다. 오후 2시에 건네받아 문서를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고, 오후 4시가 넘어서 ‘대부분 위안부였던 조선인 여성들(Korean women, a large number of whom were practicing prostitution)’을 다루고 있는 문서가 나왔다. 같은 팀의 다른 연구자는 조선인 여성들의 승선명부(이름, 직업, 거주지)를 찾아냈다.

이런 자료를 발굴해 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연구자가 사전에 수많은 2차 자료를 얼마나 분석하고 정리했는지, 방문할 기관의 문서 구조와 계열 그리고 검색 도구의 특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더 중요하게 발굴하려는 자료가 국내외에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 자료 발굴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 외에도 변수는 무수하다. 그래서 연구자는 원하는 자료, 중요한 자료를 아카이브에서 발굴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사전 조사와 연구를 해야만 한다. 그 준비 과정이 매우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가치 있는 자료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카탈로그(catalog)는 아카이브가 보존하고 있는 기록의 제목, 생산자, 생산일자 등의 메타데이터와 기술(description)을 모은 검색도구이다. 온라인 카탈로그에서는 키워드나 기타 상세 정보를 이용해 기록을 검색할 수 있고, 일부는 원문을 직접 조회하거나 현장 방문 열람, 사본 다운로드 또는 구매 등을 신청할 수 있다.

DECLASSIFIED
Authority NND 984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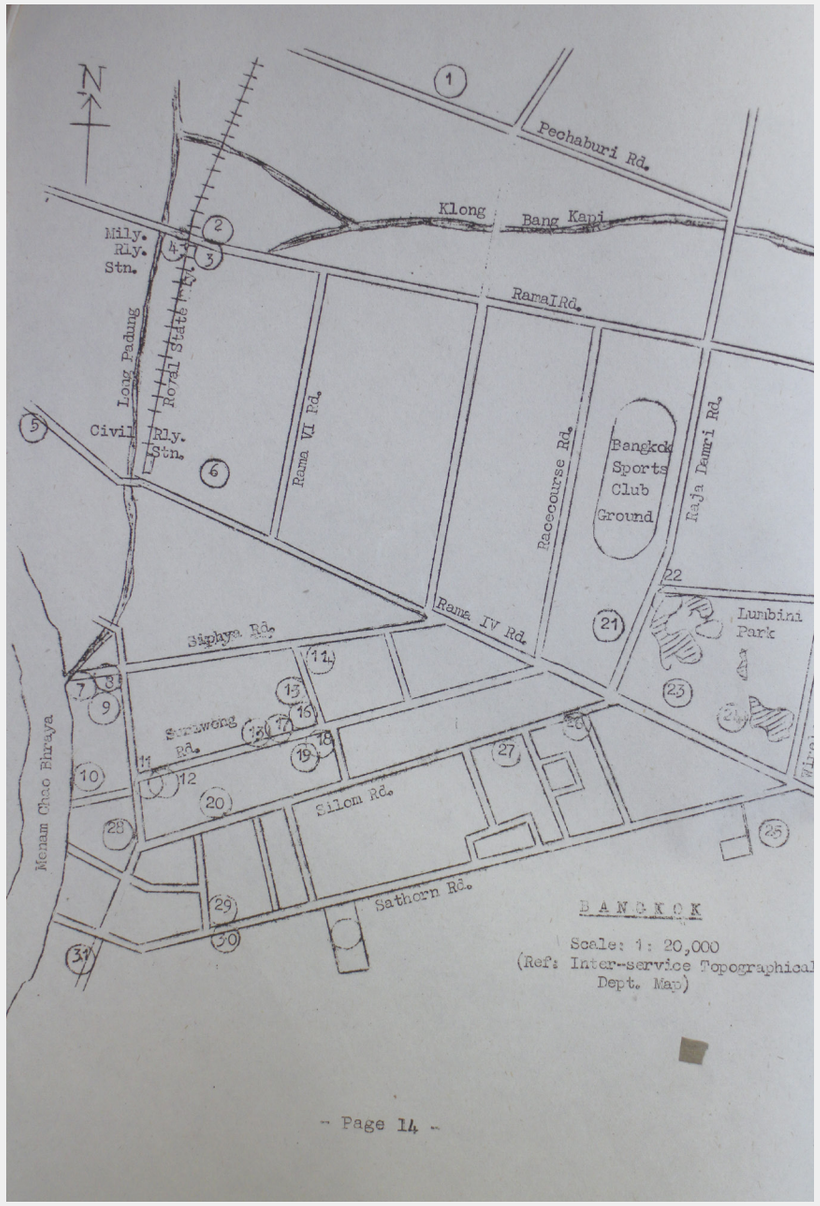
Processing of KOREAN women preparatory to evacuation. 26 KOREAN women and one female child on TRUK were evacuated to KOREA, 19 Jan46.

G-2, G-3 Report for Occupation Forces Truk and Central Caroline War Diary, 1 January, 1946 to 31 January, 1946. RG 127, Entry A1 46B, Box 95

방콕의 '위안부' 2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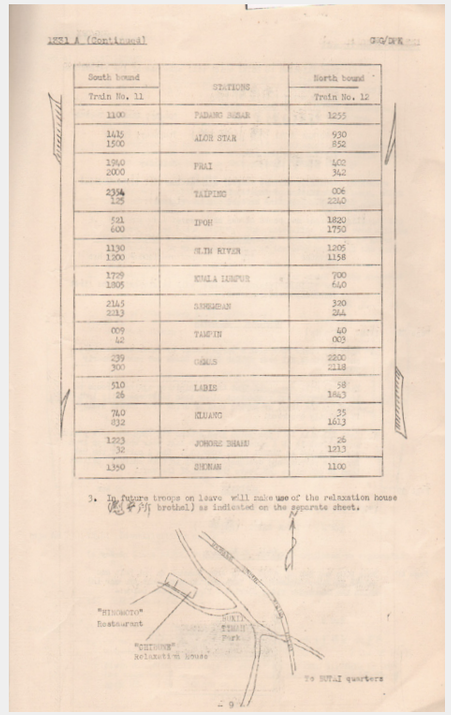
현재 미 중앙정보국(CIA)의 전신인 전략첩보국(OSS)은 일본군 식민지나 전투 지역에서 정보 수집 및 작전 수행을 펼쳤는데, 이들이 생산한 기록에는 포로 심문서나 노획 문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NARA II 의 RG 226 중 '1941~6년 XL정보보고서(XL Intelligence Reports, 1941–1946, Entry NM54 19A)' 시리즈 안에 OSS에서 작성하거나 수신한 문서들을 담은 481개 박스가 존재한다. OSS는 전쟁기간 동안 여러 전구의 첩보 기관에서 수집된 정보 중 '위안부' 자료에도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

1942년 4월부터 1945년 1월까지 버마 랑군에 거주했던 조선인을 SEATIC에서 심문한 보고서다. 같은 시리즈 안의 박스 95에서 발견되었다. 1944년 3월 기준으로 방콕 내 장교 '위안소'의 정보, 위치를 대략 스케치한 지도가 들어있고, 심문당한 조선인은 방콕의 '위안소'에 일본인 '위안부' 200명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XL6906, SEATIC Interrogation Bulletin No. 20(Air Intelligence) RG 226, Entry NM54 19A, Box 95

같은 시리즈, 박스 42에 포함된 적 '출판물 9호(Enemy publication No. 9)'이라는 자료건에는 필리핀 내 일본군 부대의 규율을 담고 있는 가이드북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의 '수비대 게시판' 항목에 위안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일본군 사병, 장교 등은 휴가를 나오면 위안소에 갈 수 있었고 매주 요일별로 부대별로 나누어 이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번 항목 아래에 위안소의 위치 및 명칭과 레스토랑이 표시된 지도가 첨부되었다. 위안소는 '치부네(Chibune)'라고 하며 각 부대에 할당된 이용일과 요금 및 이용 시간이 자세하게 나온다.



XL3142, ATIS Enemy Publication No.9 RG 226, Entry NM54 19A, Box 42

발굴된 자료들의 가치와 의미 부여하기

소개한 자료를 비롯해 서울시가 2016년부터 추진한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수집된 자료들이 이제 연구자와 대중들에게 찾아간다. 이 사업을 통해 발굴된 자료들은 최소 70년 이상 기록보존서고에 잠자고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각 분야의 연구자들이 자료를 탐구하고 자세한 해제 작업과 체계적인 정리 작업을 마친다면, 자료는 다시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아카이브에서 이러한 자료들이 꾸준하게 발굴된다면 '위안부' 연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수집, 보관된 자료가 연구자와 아키비스트의 손을 거쳐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새로운 콘텐츠로 개발된다면 가치와 의미가 더해질 것이다. 더 나아가 연구자와 아카이브의 도움으로 비전문가, 일반 시민도 1차 자료인 문서나 사진 등을 찾고,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자료들 역시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아카이브를 통해 시민들에게 서비스될 때 기록보존서고 안에 잠들어있는 동안 미처 드러나지 않았던 가치와 의미를 되찾게 될 것이다. 그만큼 서울기록원의 가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리라 본다.

남겨진 기록, 미지의 가치를 전달하는 즐거움

이영은 기록연구사
| 강서구청



“누군가가 생산한 기록을 관리하고, 누군가가 필요로 했을 때 내가 다리가 돼서 도와주면 또 잘 활용해서 쓰게 되고, 그게 재미있어요. 기록은 남아서 정보나 증거적 가치를 갖게 되니까, 활용될 가치가 있는 걸 남긴다는게 매력적이에요.”

국사학 학부 4학년, 우연히 들은 ‘기록학입문’ 수업에 반해 그 길로 기록관리의 길로 들어섰다. 인천 남동구를 거쳐 지금은 강서구청에서 생산-활용-보존-폐기가 끊임없이 돌아가는 기록관리 업무와 함께 정보공개 청구 처리를 맡고 있다. 어느덧 8년 차, 이영은 기록연구사는 “근데 저는 정리 못해요.” 웃으면서도, 자연스레 가족 사진을 ‘분류정리’ 할 고민을 하며 외장 하드 2개에 백업해서 ‘관리’ 한다는 타고난 기록연구사였다.

민원실에서 일하다 보니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많지만, 퇴직하신 구청 직원의 재취업을 도와드린 일은 참 뿌듯했다고 기억한다. 사회복지 업무를 오래 담당하셨지만, 증빙을 할 수 없어 연봉이 많이 삭감될 상황이었는데, 마침 전수조사 사업으로 옛날 기록을 폐기하기 위해 다 꺼내고 있을 때라 공익근무요원과 함께 팔 걷고 샅샅이 뒤져보니 관련 서류가 줄줄이 나왔다. 그분께 정보공개청구로 사본을 받아가시라고 서둘러 알려드렸고, 덕분에 재취업에 성공하셨다고 한다. 남겨진 기록의 가치, 기록관리라는 일의 가치를 새삼 느껴 좋았다고.

“누군가가 생산한 기록을 관리하고, 누군가가 필요로 했을 때 내가 다리가 돼서 도와주면 또 잘 활용해서 쓰게 되고, 그게 재미있어요. 기록은 남아서 정보나 증거적 가치를 갖게 되니까, 활용될 가치가 있는 걸 남긴다는 게 매력적이에요.”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지만, 내년 12월에 복직하면 전시사업을 해 보고 싶다. 퇴직 공무원을 인터뷰하고, 그분들이 하셨던 사업에 대한 기록을 찾아 이야기와 기록물을 함께 전시하면 구민들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천천히 준비해 볼 계획이라고 한다. 기록연구사가 첫 직업으로, 8년 동안 이 일만 했는데도 여전히 재미있고 해 보고 싶은 것도 생기는 걸 보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며 웃는 이영은 연구사. 강서구청은 서울에서 서고가 제일 작아 늘 걱정이지만 서울기록원이 완성되고 이관 계획이 잡히면 준영구, 영구 기록물을 보내고 서고도 새롭게 정리해 보고 싶다며 기대의 말을 전했다.

개인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록은?

우리 가족 기록. 사진도 있고, 아이들 처음 입었던 배냇저고리, 처음 신었던 신발도 다 가지고 있다. 아이가 처음 그렸던 그림도 있다. 종이라 보관이 어려울 거 같아서 쿠션으로 만들어 두었다. 남편이 연애할 때, 출산할 때 써 준 편지도 다 보관하고 있다.

요즘 삶의 가장 큰 행복은?

지금은 당연히 둘째 아이. 이제 70일 정도 됐다.

이런 것까지 기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지, 어떤 사건과 연결되는 순간 가치가 생기고 기록이 된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났을 때 썼던 만년필도 다 기록이다. 나는 첫째, 둘째 임신테스트기를 다 가지고 있다. 아이를 처음 만난 순간이니까.

가장 최초의 기억은?

복숭아를 정말 좋아하는데, 여섯 살 때 장염에 걸려서 엄마가 “복숭아 먹어.” 했는데 혼자만 못 먹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도 복숭아 살 때마다 떠오르는 거 보면 그 때 많이 속상했나 보다.

지금 하는 일 이외에 갖고 싶은 직업?

나중에 이 일을 그만두면 동물 행동 관련해서 공부해 보고 싶다. 동물 복지 일을 해 보고 싶다.

요즘 가장 즐겨 듣는 노래는?

김동률 6집 동행. 반복해서 들어도 안 질리는 것 같다.

기록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기록은 기억이다. 기록에는 어떤 상황이 담겨 있고, 그걸 들춰보면 기억이 떠오르거나, 정보가 드러나니까.

‘타인의 삶’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김진성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영화 Das Leben der Anderen, 플로리안 헨켈 폰 도너스마르크, 2006년, 137분



영화 ‘타인의 삶(Das Leben der Anderen)’의 주인공 비즐러

독일민주공화국(이하 동독) 국가안전부(통칭 슈타지 Stasi:Staatssicherheit)는 한때 동유럽 최고의 정보·방첩 기관으로 일컬어졌는데, 1989년 독일 통일 때 해체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개념적으로 정보·방첩 기관은 첩보의 수집 및 분석, 스파이·공작 활동 대응을 주요 업무로 수행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대상과 범위의 모호함, 비밀 수행 원칙, 기계적인 관료주의 기구 및 문화 등 때문에 국제·국내 법규에 저촉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활동, 즉 헌법 위반 및 인권 침해가 종종 있어왔다. 특히 슈타지의 경우 너무 많은 조직원(공무원)이 너무 많은 대상 인원(국민)들을 잠재적 적성분자로 취급하여 감시했다는 점에서 독일 통일 후 이슈가 되었다(1989년 당시 동독 인구는 약 1천6백만 명 정도인데 슈타지 직원 및 협력자는 약 20만 명에 이르렀다).

미행, 도청, 위협, 구금 등 국가기관이나 심부름센터가 하는 업무의 차이는 그 행위의 근거나 기준이 적법한가, 활동 전반에 대해 내외부에서 제어나 감시를 할 수 있는가이지 그 내용 자체는 아니다. 영화 ‘타인의 삶(Das Leben der Anderen)’의 주인공인 비즐러는 슈타지의 방첩 전문가이며 특기는 심문, 도청, 위조 등으로 묘사된다. 그가 성실히 조직의 직무를 수행하는 이유는 특정한 정치 이념에 충실하기 때문이라기보다, 그 직무 자체에 대한 성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상사의 개인적인 욕구에서 비롯된) 친정부 인사에 대한 감시업무에 대해서도 자신의 직분을 다할 뿐이다. 개인의 삶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지만 타인에게 보일 때 그것은 자료 내지는 대상화된 존재이다. 몰래 누군가를 엿보고 듣는 것은 윤리적으로 그릇된 행위이지만 그 자체의 쾌감은 실재하는 것이다. 비즐러의 후배가 이를 즐기는 모습과 비즐러 본인이 감시 대상자의 예술적 취미를 감상하는 것이 그러하다. 다만 비즐러는 그 순간 타인의 삶이 자신에게 끼치는 영향을 발견한다.



친정부 인사이지만 동독 체제에 대한 반대 글을 서독에 익명으로 투고한 드라이만과 끝내 그의 정체를 폭로한 드라이만의 애인 크리스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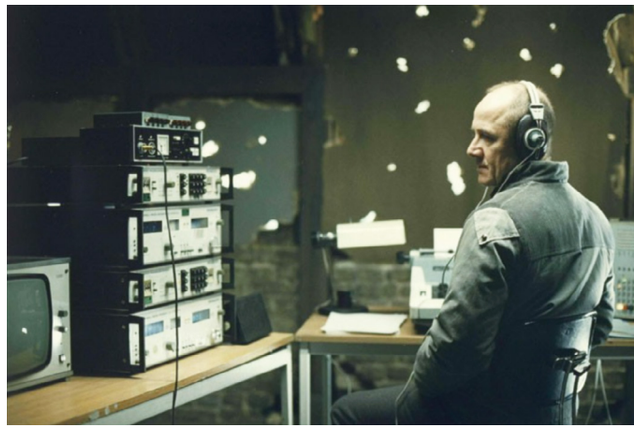
친정부 인사이던 드라이만은 동독 정권의 강압적인 체제에 회의를 느껴서 이에 반대하는 글을 서독 언론에 익명으로 투고한다. 이를 도청으로 알아낸 비즐러는 갈등하지만, 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드라이만이 사용한 비밀 타자기를 감춘다. 드라이만의 애인인 크리스타는 슈타지에 구금되어 압박 끝에 드라이만이 익명의 기고자임을 자백한다. 드라이만은 정권을, 비즐러는 조직을, 크리스타는 애인을 배신했다. 일반적으로 배신은 옳지 않은 행위이지만, 더 큰 대의를 위한 행위는 배신이 아니라고 한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든다. 첫째, 대의를 위한 행위가 (감수하겠다고 다짐한) 내가 아닌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정당한가. 둘째, 어느 직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대의에 어긋난다면 그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대의에 부합하는가. 셋째, 일신의 안녕을 위해 배신을 한 경우에 대한 구원 내지 구제는 어떠해야 할까. 분명한 정답은 없겠지만 해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슈타지가 해체되면서 그 조직원들이 기록물을 폐기하는데 소요한 기간은 약 6개월 남짓으로 전체 중 어느 정도가 폐기되었는지, 중요 기록물은 어느 정도 폐기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 중에 슈타지가 기록물을 비밀리에 폐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동독의 일부 시민들과 검사, 인민경찰들은 슈타지 지부 사무실과 기록물들을 접수하고 보관했다. 이 기록물의 규모는 파일목록 1.6Km, 녹음테이프 18만 개, 사진 1백만 장, 파쇄 문서 17만 자루로 전체 약 178Km에 달하며, 약 6백만 명(그중 2백만 명은 서독인)의 인명 정보를 포함한다. 남겨진 기록물들은 독일 통일 후 대통령 직속의 슈타지 기록물관리청(BStU: Bundesbeauftragte fuür die Staatssicherheit-Unterlagen)에서 관리되며 개인, 공공·민간기관, 언론 등에 자기관련성이나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공개된다. 영화에서 드라이만은 통일 이후 자신이 감시받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다. 그리고 이름 모를 어느 슈타지 직원이 자신을 도와주었음을 알게 된다. 실제 슈타지 기록물은 정치적 청산, 역사적 연구, 개인의 복권이나 사건 규명, 공무원 임용 심사 등에 이용되지만, 일부 내용의 신뢰성 문제 때문에 때때로 공개나 제공이 거부되기도 한다.

비즐러는 드라이만의 삶을 엿보면서, 비록 방법은 윤리적으로 바르지 않았지만, 그 일부를 자신의 삶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러기 위해서 평소의 직무 성실성 원칙도 저버리며 기록물을 변조하고 증거물을 은폐했다. 그 결과 그는 한직으로 좌천되었고 마지막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코드명만이 남았다. 만약 한국에서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면, 그리고 제반 상황이 공개되었다면 어떨까. 기록물 관리의 측면에서 본다면 비즐러는 기록물의 신뢰성을 훼손했다. 그리고 그 행위는 타인의 삶을 구했다. 비록 그에 동조할 수는 없지만, 그의 삶을 이해할 수는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야겠다.

※ BStU와 슈타지 기록물에 대해서는 하도헌, 「독일통일과정에서의 슈타지(국가보위부) 해체·청산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정치통일전공 석사학위논문, 2005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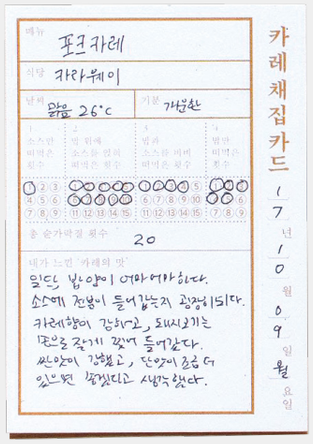
이 글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발간물 〈카르마〉 3호에 게재된 콘텐츠를 허락하에 편집한 것입니다.



도청을 위한 장비 앞에 앉은 비즐러

이토록 작고
소중한 아카이브

**기록은 어디까지 사소해질 수 있을까. 아니, 세상에 '사소한 기록'이 있을까?
여기 중요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해서 소중해지는 것들이 있다. 쉽게 지나쳐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을 차곡차곡 기록해 자신만의 아카이브를 만든 세 사람의 이야기.**



blog.naver.com/curycurryblue
www.instagram.com/curycurryblue

"무언가를 이렇게도 좋아할 수 있어요." 카레커리블루

무언가를 진지하게 좋아해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반복되는 일상에 목디스크까지 겹쳐 무엇에도 집중하지 못하던 때, 어느 날 카레를 먹는데 그 순간과 그 맛에 집중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느낌이 좋아 하루하루 카레를 먹고, 느낌을 기록하던 것이 카레커리블루의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기록하면 재미있겠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했지만, 2017년에는 323번, 2018년에는 12월 31일까지 333번 카레를 먹고 기록했다.

기록하는 나 자신보다는 카레가 더 드러나길 바라며, 카레 색깔이 가장 잘 드러나는 보색 '파랑'을 넣어 지은 '카레커리블루'는 노길우 씨가 카레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모든 행동의 이름이자, 아카이브다. 카레를 먹을 때마다 구글 시트에 날짜, 장소, 시간은 물론 카레의 맛과 함께 그날의 날씨, 숟가락질 횟수같이 사소한 것도 모두 기록한다. 블로그에는 사진과 함께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카레가 나오는 영화 등 카레와 관련된 것, 카레를 경험하면서 느낀 감상까지 좀 더 다양한 내용을 적는다. 인스타그램으로는 좀 더 가벼운 내용과 관련 활동 소식을 전한다. 일본 소설《배를 엮다》에 나오는 사전편찬부의 '용례 채집 카드'에 영감을 받아 '카레 채집 카드'를 만들어 카레 식당에 비치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보통 카레를 한 번에 비벼 먹지만, 여러 방법으로 먹도록 행동을 유도해 보고 싶어 숟가락질 방법이 적힌 카드를 만들어 나누고 있다.

2017년, 도쿄 카레 여행에서 만난 열두 가지 카레를 기억하는 에세이《작고 확실한 행복, 카레》를 출판했는데 호응이 좋았다. 카레는 쉬워 보이지만, 매번 균일한 맛을 내는 게 몹시 어려운 음식이라고 한다. 향신료와 채소 등 재료의 종류와 조합, 조리 순서와 시간 등 많은 변수가 있어 레시피보다는 오랜 경험으로 맛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한없이 깊이 들어가게 된다. 작년과 올해는 일본 카레 여행을 다녀왔지만, 언젠가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로도 카레 채집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한다.

"카레커리블루는 카레를 담는 그릇 같은 거예요." 시작은 '좋아하는 것'의 아카이브였지만 카레를 담을 수 있다면 굿즈, 북토크, 팝업키친 등 어떤 형태로도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길우 씨에게 카레커리블루는 카레를 만나고, 기억하고, 알아가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도 좋아할 수 있어요'라고 나지막이 건네는 이야기다.



www.instagram.com/sleeverary
www.facebook.com/givemeyourslee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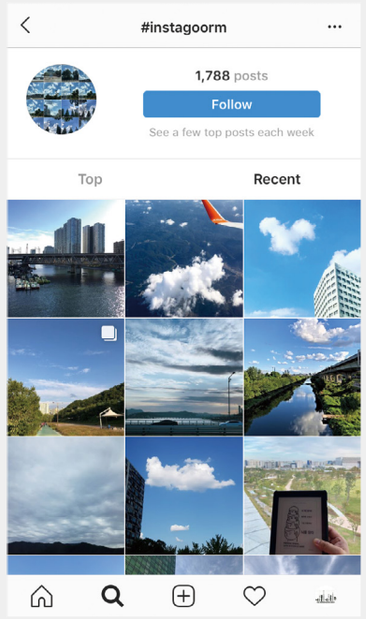
"똑같이 생겼는데 모두가 달라보이려고 애쓰잖아요."슬리브러리

"슬리브가 뭐냐면요, 커피 테이크아웃하면 컵에 끼워주는 거예요. 흔히 홀더라고 부르는 거요." 최지은 씨는 대부분은 이름조차 모르게 마련인, 30분 남짓 쓰다가 분리수거함으로 던져버리는 물건을 모으고 있다. 2012년 어느 날, 점심마다 사 온 커피 컵으로 책상이 가득 차자 한꺼번에 버리려다 '새것인' 슬리브가 왠지 아까워 빼 둔 것이 시작이었다. 제각각인 디자인이 의외로 예뻐 작은 상자에 모아보았다. 주변 사람들도 재미있다며 슬리브만 그녀에게 '분리수거' 해 주었는데, 어느덧 2천 개가 넘었고 종류로만 따져도 천 종이 넘는다.

최지은 씨는 생각보다 다채로운 슬리브를 혼자 보기 아까워 SNS에 올리면서 sleeve와 library를 합쳐 슬리브러리(sleeverary)라는 이름을 지었다. 색깔과 특징별로 태그를 달아 분류도 해 보았다. 개수가 많아지면서 보관용 서랍장을 마련했고,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보고 있다. 인스타그램 계정은 해외에서도 먼저 팔로우 신청을 해 오는데, 슬리브를 모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놀랍다고 한다.

처음에는 그저 '작고 예쁜 것'이었지만, 모으다 보니 사람이 옷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드러내는 것처럼 비슷한 컵들이 슬리브를 입고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게다가 슬리브는 모양, 크기, 재질이 거의 똑같은데, 그 안에 수백 수천의 브랜드가 자신만의 얼굴과 목소리를 담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엿보여 모으면 모을수록 재미있다고 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소개를 할 때면 최지은 씨는 끝에 '슬리브를 모은다'고 덧붙인다. 그러면 그중 몇몇은 다음에 만날 때 두어 개의 슬리브를 웃으며 건넨다고. 슬리브러리 덕분에 자신도, 다른 이들도 무심코 버리는 물건과 무심코 흘리는 순간을 잠깐 멈추어 볼 수 있는 것 같아 좋다.



www.instagram.com/explore/tags/instagoorm

"동시대를 함께 즐기며 기록하는 이벤트가 됐죠." #Instagoorm

어릴 때부터 방에 누워 지나가는 구름을 보는 걸 좋아했다. 구름에 대한 책을 읽고, 예쁜 구름을 보면 사진을 찍곤 했다. 뭉게뭉게 부드러운 느낌도 좋고, 단 한순간도 '똑같은 구름'이 없다는 것도 재미있었다. 지역, 계절, 날씨마다 다른 모습에 아무리 보아도 질리지 않았다. 2010년 초, 인스타그램이 세상에 나타났고 사람들이 '해시태그'라는 것을 만들어 쓰기 시작했다. 조성도 씨는 인스타그램을 시작하며 발음이 비슷한 '인스타구름' 이라는 말이 떠올라 구름 사진을 올리고는 #instagoorm 태그를 최초로 만들어 붙였다. 주변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둘씩 #instagoorm 태그를 붙이기 시작했다. 2018년 12월, 어느덧 1,788장의 구름 사진이 이 작은 태그 하나로 모였다.

처음에는 그저 '예쁜 구름 사진들'이었지만, 태그를 붙이면서 모두의 기록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휴가가 시작되는 여름, 눈 오는 날, 노을이 유독 예쁜 저물녘이면 인스타그램 피드가 바삐 움직인다. 너도나도 구름 사진을 찍고 #instagoorm 태그를 달아 공유하고, 서로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며 그 순간을 함께 즐긴다. 최고의 '구름 성수기'는 '8말9초', 늦여름이다. 해외에서도 올라오는 #instagoorm 게시물을 보며, 조성도 씨는 작은 태그 하나가 구름처럼 느슨한 커뮤니티, 동시대를 사는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즐기며 기록하는 하나의 이벤트가 된 것 같다고 느낀다.

한때는 인스타그램의 API 서비스와 GEO 코딩을 이용해 #instagoorm 태그 게시물을 드롭박스, 구글맵에 연동해 자동으로 지도 위에 매핑하면서 모아보기도 했다. 지금은 API 정책이 바뀌어 중단했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서 다시 한번 시간, 장소 정보와 함께 구름 사진을 모아 보고 싶다.

조성도 씨는 #instagoorm 태그를 가까운 사람들에게 열심히 권한다. 도시에 살고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온종일 하늘 볼 일이 없는 수많은 사람이, SNS에 올릴 구름 사진을 찍기 위해서라도 햇빛 한번 보고 허리 한번 펴면서 작은 즐거움을 만끽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세상에 예쁜 구름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누군가는 모아서 미래로 보내야 한다면

4년 전 봄, 슬픔에 젖어 있다가 분향이라도 해야겠다며 서울광장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 가서 분향하고 적은 추모글과 추모 리본, 추모 종이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으레 버려졌으려니, 생각했다면 틀렸다. 다행히도,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모든 것은 서울시에서 잘 보존하고 있고, 일부는 서울도서관 3층에 있는 서울기록문화관 내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에 전시되고 있다. 이 분향소 기록들은 새로 지은 서울기록원에 영구보존된다. 당시 분향소의 기록을 나중에 꼼꼼히 정리해보니 추모 리본은 83,000여 개, 추모 종이배는 450여 개, 추모 글은 12,900여 장, 그리고 그림이나 문서도 수백여 점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역사와 삶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억'이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회적 기억'을 만들어 내는 사건, 장소, 인물들을 접한다. 사람들에게 이것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모아서 미래로 보내야 한다. 이런 '사회적 기억'을 수집하고 미래로 보내는 것이 공공 기억기관의 일이다. 기억기관이라고 하면 보통 박물관이나 도서관을 생각할 텐데, 아카이브도 있다. 그 아카이브가 서울에도 있고,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내 새로 지은 건물에 입주하여 곧 개관한다. 서울기록원이다.

서울기록원에서 모아 미래로 보내는 '시정기록'도 있다. 물론 일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모든 기록을 다 미래로 보내지는 않고, 역사와 정보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록을 선별한다. 왜 '시정기록'을 장기보존할까? 시정기록이라면 공문서가 대부분일 텐데. 그것을 시민들이 보면 쉽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재미도 없는 것을 왜?

시정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서울시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관해 먼 훗날에도 설명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이다. 어떤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시행했으며, 그 결과는 어떤 것들이었는지 미래의 서울시민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시정기록'은 서울시라는 공공기관이 무슨 일을 했는지 설명할 수는 있지만, 서울의 다양한 기억들을 그대로 보여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시민의 기억과 기록도 같이 가져가야 한다. 시정기록, 사회적 기억, 시민의 삶에 대한 기억과 기록. 이것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관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분류하고, 그런 기록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서울기록원이다.

시민들에게 아카이브는 생소한 기관이다. 은평구에 서울기록원을 신축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 주민 일부가 현수막까지 내걸고 반대했다. 그때 반대 구호가 "금싸라기 땅에 문서창고가 웬 말이냐?"였다. 역세권의 넓은 땅을 개발해도 시원찮은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서 보존하는 곳 아니냐, 그런 시설은 멀리 외진 곳에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였다. 우리는 그럴듯한 아카이브를 가져보지 못했기에, 이 반응은 당연했다.

신축 부지 인근 주민들만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 주변에서도 "서울시 기록을 조선왕조실록처럼 관리하려고 하는가?", "스캔하고 버리면 되잖아? 왜 공간 아깝게 보존을 하지?", "서울기록원이 너무 역사박물관 포맷으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 전시·교육 공간이 왜 필요해?" 등의 지적이 많았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아카이브는 기록을 모셔두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기록을 수집하고, 잘 분류하고 관리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기관이라는 것임을 설득해야 했다.

시민들이 기록을 체계적으로, 편하게 이용하려면 서울기록원은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정책은 물론 사건, 장소, 사람에 대해 이용하기 쉽도록 체계적인 목록을 만들어야 하고, 검색과 탐색은 물론 맥락의 이해를 위한 기록에 대한 가이드 등 다양한 설명 도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준비한 것들은 서울 디지털 아카이브(Seoul Digital Archives)를 통해 세상에 나온다. 시민들은 그동안의 공공기관 홈페이지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의 디지털 아카이브 웹사이트를 만나게 된다. 물론 서울기록원에 직접 방문해서도 보존해서 정리가 끝난 기록의 열람, 기록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전시와 그에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접하게 될 것이다. 서울기록원은 임시 개관과 정식 개관을 거쳐 수년에 걸쳐 준비한 것을 곧 펼쳐 보이려 한다.

우리는 세계 유수의 아카이브를 가져 본 적이 없다. 국가기록원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행정기관으로 인식할 뿐 시민에게 친숙한 아카이브는 아니다. 서울기록원은 좀 다르게 보이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약속을 한다. '서울기록원은 플랫폼을 제공하고, 재미있고 보람된 일은 시민에게 양보하려 한다'는 약속. 이런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다.

프랑스의 시인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인간의 최고 의무는 타인을 기억하는 것이다". 서울기록원은 서울과 서울사람을 기억하는 의무를 다할 것이다. 서울은 당신을 기억한다.

서울기록원 원장
아키비스트 **조영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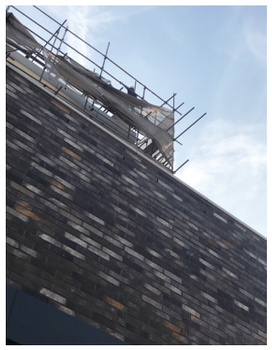
숨겨진 것들을 남기다

2018년 10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아카이브 서울>의 가려진 조각들.
함께한 사람들, 찾아갔던 곳, 그곳에서 만난 사람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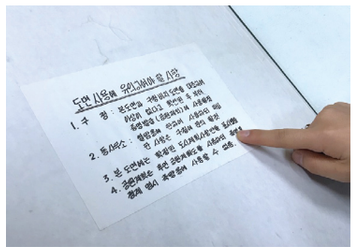
01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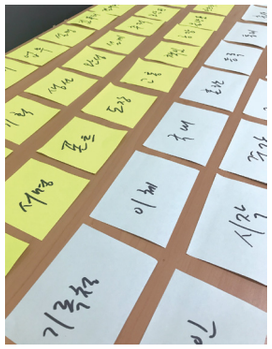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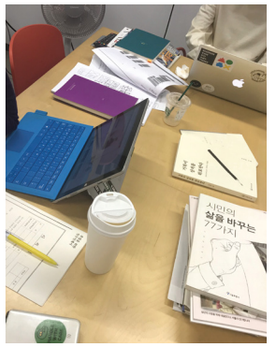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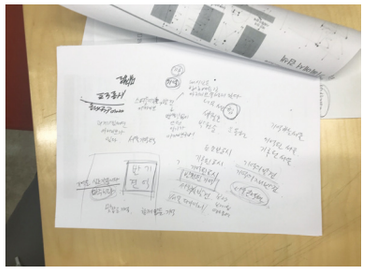
06



07



08



09



01
2018. 10. 25.
서울특별시청 지하 4층의 문서고. 한쪽에 도면들이 정리되어 있다.

02
2018. 10. 25.
서울기록원은 건립은 한창 진행 중이다.

03
2018. 11. 15.
청도문서고에서 만난 아름다운 서체의 문서기록

04
2018. 11. 15.
30년이 넘은 책상과 집기들. 청도 문서고에는 꾸밈없는 빈티지가 가득하다.

05
2018. 11. 22.
서울기록원 구성원이 모여 〈아카이브 서울〉의 영구적인 테마를 위한 단어 워크숍을 진행했다.

06
2018. 11. 22.
테마를 위한 단어 워크숍의 산출물들. 모두 기록관리와 관련된 단어다.

07
2018. 11. 25.
자주 진행되었던 〈아카이브 서울〉콘텐츠 기획 회의

08
2018. 11. 25.
〈아카이브 서울〉 대신 이런 게 제목이 될 뻔한, 뻔한 후보들

09
2018. 12. 11.
사진 찍는 인터뷰이를 촬영하느라 재밌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COVER STORY

앞 보관 서랍이 빼곡한 마이크로필름실은 항상 13~17 °C로 온도가 유지되어 상쾌한 듯 쌀쌀하다. 8,003롤의 마이크로필름이 이 안에서 조용히 찾아올 이를 기다리고 있다.

뒤 1985년 가장 먼저 구입한 마이크로필름 촬영기 SMA 106/150는 전지 크기의 도면을 촬영할 수 있는 장비다. 고장으로 지금은 은퇴했지만, 줄곧 청도문서고를 듬직하게 지켜온 가장 큰 형이다.

아카이브 서울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조영삼 서울기록원장
발행처 서울특별시
vol.1
발행일 2019. 2.

archives.seoul.go.kr

제작부서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제작총괄 김은실 기록정책과장
제작담당 김성미 학예연구사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2길 7
전화 02-350-5600

편집 및 디자인 슬로워크
사진 정은지, 이원희
인쇄 예인미술

ⓒ 2019. 서울특별시
본 제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ISSN 2636-0764 01

표지 아라벨 186g, 내지 아라벨 105g, 182*257mm(B5), 32pgs, 양면4도, 중철제본



서울기록원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2길 7 | 02-350-5600

ISSN 2636-0764 01